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진로 여행,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대학 교육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들이
20세기에 반해 21세기에는

어떻게 그 기능과 역할이
변할까 하는 부분들인데요.

많은 미래학자는
미래사회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대학은 그에 따라서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대학이
변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의 변화만큼은
따라가긴 상당히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학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이뤄졌는데요.

특히 미래학자들이 21세기 초에

휴스턴에 있는 대학에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주로 사용했던 접근방식은
‘하먼 팬’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과연 미래 대학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약 800여 개 정도
이론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미래에는 대학들이 사이버대학으로
변하게 되고

그 사이버대학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대학으로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노 캘린더 유니버시티’
학사일정이 사라지고

출석 수업이 사라지는 ‘노 유니버시티’

그래서 누구나가 원하면
어떤 대학이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올 해브 액세스 유니버시티’
(All Have Access University)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대학들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에 거쳐서 미래에는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이전의 대학들은 신학과 인문학이
주류를 이룬 반면

중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대학들은

대부분 과학과 공학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것인가 봤을 때
대부분의 미래학자는

가치학과 영성학이
미래의 대학을 주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의 역할도 변할 텐데요.

과거와 현재에는 주로
평화를 수호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미래에는 좀 더 절실하게

어떻게 인류가
이 지구 내적인 환경의 변화나

지구 외적인 위험요인으로부터
살아남을 것인가 이쪽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팬 시나리오’ 기법에 의해서 등장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이 데이터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를 크게
3개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그 3개로 구분한 관점이

첫째, 만일 대학의 변화와

개혁의 드라이브를

정부가 주도해서 해 나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정부의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하면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적 관점과 평등성의 개념에서

대학을 개혁 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학의 진화과정은

첫 번째 시나리오로, 평생학습대학에서

입학시험이 사라지는 대학으로,

그리고 다양성이 강조되는 대학으로

진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감성 대학으로

진화해 나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성 대학의 경우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원어로는

‘그레스호퍼 유니버시티’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성도 좋고
여러 가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중요하고,

대학들이 궁극적으로 진화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도 진화하지 않겠느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 시나리오,
정부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학을 진화 시켜 나간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평생학습대학을 거쳐서
글로벌다문화 대학,

그다음에 다양성이 살아있고
강조되는 대학으로

그런 다음에 멘토형 대학으로 진화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만일 기업이 대학들을
변화 시켜 나간다는 가정하에서는

아마 그 방향은

이윤의 극대화와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대학으로

진화하겠고,

그다음에 모든 기업의 활동 범위가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다문화 대학으로 진화한 다음

그 과정에서도

씩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는

기업이 직접 대학을 운영하는

기업운영 대학체제로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자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특성화하는 대학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안 시나리오로는

산학협동이 강조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론중심의 학위보다도

경험 중심의 학위를 부여하는

대학으로 진화하고,

마찬가지로 앞에 제시한 시나리오처럼

기업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진화한 다음에 브레인 칩 대학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관점에서

대학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그때는 학습자의 수월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학점교류대학

그다음에 입학시험이 사라지는 대학

그리고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민원과 학사일정이

운영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멘토링 대학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 시나리오로는,

학점교류대학, 그다음에

통학하지 않아도 학위를 딸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앞서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형 대학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명문대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대학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라는 ‘THE’ 라는 평가지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ARWU’ 라는 지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척도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학구적인 분위기나 행정 시스템은
어떠한가' 라는 데에서

평가항목이 17개 정도가 있고요.

캠퍼스 생활의 만족도에 10개 정도.

이 대학의 학생들이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인구 통계학,
캠퍼스 타운의 만족도,

그다음에 정규교육의 다른 특징들은
뭐가 있는지,

사회기반시설은 잘되어 있는지 등등이
주요 평가지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그리고 사회가 공감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고

유난히 눈에 띄는 것 하나를 소개하면

인구통계학의 관점의 체크리스트 중에서
‘LGBT’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단어 뜻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라는 말입니다.

학교가 맹목적으로 LGBT를 부정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 경우는

그 대학의 평가점수가 낮아지도록
이렇게 지표들을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LGBT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LGBT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인 것은 인정하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현상이고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미래에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러한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까지도 스스로가 대학에서 접해보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었을 때

진정으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조차도 금지하지 않고
토론을 허용하고

그런 문화를 배제하지 않는
대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대학들은 모두
실력으로만 다 뽑질 않습니다.

소수를 아주 존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종이 미국 내에서
작은 집단들인 경우는

명문대학 내에서 쿼터제로
일정비율을 뽑아줍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일정 부분 뽑아줍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렇게
입학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섞여서 진정으로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를
대학 안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학에서 건강하게
부정적인 부분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졸업을 하게 된다면
그 학생은 사회에서 그러한 현상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충분히

스스로가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대학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대학교육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